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세계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MSO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한 달간의 MSO 사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MSO 세계선교국 헌신예배, 대면 예배로 사명 재확인

세계선교국 헌신예배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군중앙교회 기드온예배실에서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예배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드려지며 군선교의 사명을 다시 불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부 예배는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어 홍성표 국장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이현철 팀장의 기도예로 이어 임준호 목사가 “각 나라의 군에 다윗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통해 각 나라 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MSO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어 운영실장의 주간 사역보고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세계선교국 사역보고가 이어졌다. 홍성표 국장은 사역 방향과 사역자의 마음가짐을 나누었고, 계용호, 윤문수 팀장은 각각 중동과 아프리카 선교보고를 전했다. 이현철 팀장의 간증을 통해 현장 사역의 은혜도 함께 나누었다.

이번 헌신예배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군선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였다.



설교: 임준호 목사
(육사교회 담임)



사역보고:
홍성표 국장



중동선교 보고:
계용호 팀장



아프리카 선교보고:
윤문수 팀장



간증:
이현철 팀장

2 동아프리카 지역대회... “사명을 위한 재각성” 다짐

3월 2~5일 케냐 리무루에서 열린 동아프리카 MCF 지역대회에 9개국 약 100명이 참석해 복음 사명 회복을 다짐했다. “사명을 위한 재각성”을 주제로 AMCF 지도자들과 한국 MSO가 함께 참여해 협력의 방향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지역 MCF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MSO-MMI-ACCTS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에티오피아 MCF의 헌신적인 사역이 큰 도전과 은혜를 전했다. 또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 말씀을 중심으로 군 안에 복음의 빛을 확산시키는 결단이 이어졌다.

아울러 MCF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국가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인 교류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이번 대회는 동아프리카 군선교의 확장과 사명 재확인的重要한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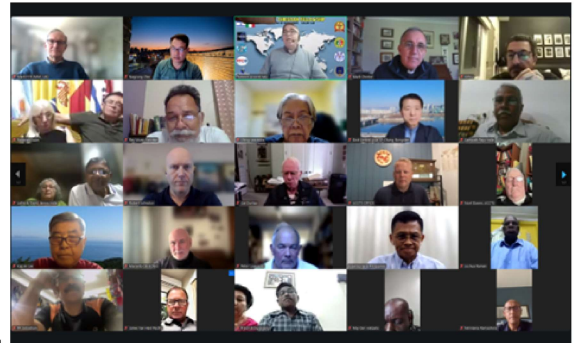
3 AMCF 활동사항

가. AMCF Watch & Pray... 세계 군선교 위한 중보기도 지속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의 “Watch & Pray” 사역이 이어지며, 세계 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 사역은 각국 군선교 현장의 필요와 긴급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글로벌 연합 기도운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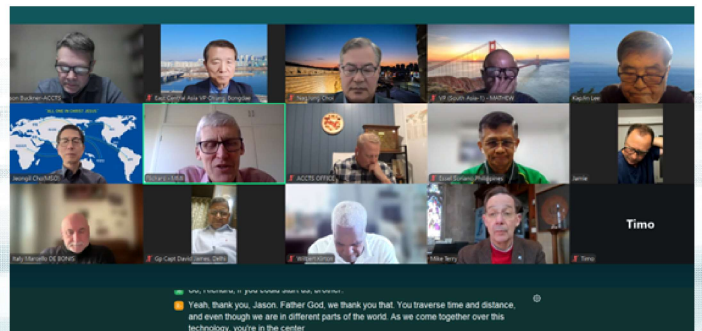
특히 분쟁 지역과 복음이 제한된 국가, 군 내 신앙 공동체가 미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적 연대와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

“깨어 기도하라”(마 26:41)는 말씀에 따라, Watch & Pray는 군선교 현장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2026 AMCF Leaders Interaction (ALI) 위한 AMCF Pray & Plan... 준비와 기도로 방향 설정

2026년 ALI를 위한 AMCF P&P가 진행되어 사역의 방향성과 영적 준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세계 군선교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전략과 기도를 함께 모으는데 초점을 두었다. 참석자들은 ALI를 통해 각국 군선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재무장되고 복음 확장의 핵심 리더로 세워지도록 뜻을 모았다.



또한 지역 성장 전략, MCF 사역 모델, 보안 이슈, 리더십 비전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모든 준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재확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하는 합심기로 모임을 마쳤다.

다. 남아프리카 월례 기도회 비대면 참여... 아프리카 위한 중보기도

3월 5일 진행된 남아프리카 월례 기도회에 MSO도 비대면으로 참여해 아프리카 군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했다. 참석자들은 말씀 나눔과 함께 아프리카 4개국을 위해 집중 기도했으며, 지역 현안과 2026년 TMTI 관련 사항도 공유했다. 이번 모임은 기도 연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라. 중앙아시아 국가 비전 기도회... 스탠다트 대회 준비와 협력 논의

3월 10일 중앙아시아 국가 비전 기도회가 개최되어, 2026년 스탠다트 대회 준비와 군선교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대회 장소 예약금 문제 등 주요 현안이 공유되었으며, 계획 수립 후 MSO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키르기즈스탄 MCF와의 협력, 목회자 초청 사역, 동·중앙아시아 대회 참가 준비 현황(총 18명 등록)도 점검되었다. 이번 모임은 중앙아시아 군선교 확장과 협력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4 KVMCF-KMCF 연합 조찬예배 개최... 은혜와 연합의 시간

4월 1일 국군중앙교회에서 KVMCF-KMCF 연합조찬예배가 열려, 군선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연합을 이루었다. 서현철 목사는 이사야 53:5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삶과 사역으로 드러낼 것을 전했다.

예배 후 교제와 연석회의를 통해 협력과 사역 방향을 나누었으며, 참석자들은 군선교 사명과 정체성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5 4월~5월 MSO/AMCF 주요 사역활동

일시	주요 내용
4.1(수) 05:30	• KVMCF/KMCF 연합조찬예배/유관기관협조회의(국군중앙교회)
4.1(수)~9(목)	• 구소련권 제자훈련 (우크라이나 키예브팀)
4.10(금)~11(토)	• 교육훈련국 워크숍 (광림수도원)
4.21(화) 18시	• 해외파견 기독교관 초청행사
4.25(토) 10:00	• 국내운영국 헌신예배 및 워크숍(국군중앙교회/대면)
5.23(토)~25(월)	• FMF-K(주한외국군인) 인터랙션 (광림수도원)

6 기도제목

• 세계기독교군인연합회(AMCF)를 위해

- ① 세계 196개 나라 중 MCF가 미설립된 41개국에 MCF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 ② AMCF 회장, 각 지역 부회장의 모임과 소통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 ③ ACCTS(미국), MMI(영국), MSO(한국) 주지원기관의 협력사역으로 AMCF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 ④ 전 세계 MCF와 리더를 통해 기독교군인에게 성경공부, 기도모임, 친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 ⑤ 전 세계 분쟁 지역(인도차이나, 중동, 러시아우크라이나, 아프리카)에 정치적 안정과 평화가 임하도록.

• 세계기독교군인 선교협력위원회(MSO)를 위해

- ① MSO 주요 사역인 FMF-K 인터랙션(5.23~25), AMCF Leaders Interaction(6.15~22)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철저히 준비되어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 ② 중앙아시아 Stan-Dart 대회(10월 중 / 우즈베키스탄 MCF)와 동중아시아 지역대회(9.16~19 / 한국 MCF)가 주관 국가 MCF와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진행되어, AMCF 리더 양성의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 ③ 교회, 유관기관,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AMCF선교협력위원회)

❖기업은행: 057-054670-01-037 ❖우리은행: 1005-100-928357 ❖국민은행: 822401-04-101283 ❖우체국: 011494-01-001584





2026년 AMCF 동아프리카 지역대회 참가결과

MSO 동북아프리카 팀장 윤문수 안수집사

먼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부터 5일까지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동아프리카 기독교인 회(MCF) 지역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영국 MMI와 미국 ACCTS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는 중요한 영적·군선교적 모임입니다. 한국은 약 16년 만에 MSO를 통해 다시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적인 느낀 점과 군선교적 시사점 세 가지를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프리카 MCF의 사명을 재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Re-awakened for Mission”(요엘 2:28)이었으며, 이는 AMCF 세계대회 주제인 “Arise and Shine”(이사야 60:1)의 실천적 연장선이었습니다. 특히 MCF가 없는 남수단 대표 2명을 초청하여 실제적인 설립을 논의하였고, 예비역 군인들의 삶을 돌보는 영적·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대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선교를 실행하는 플랫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개인적인 영적 재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 세 번의 강해 설교를 통해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먼저 깊은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rise and Shine in a better position”이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셋째, 에티오피아 MCF 센터 건축 사명에 대한 재각성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에티오피아 MCF 센터 건립 사역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아디스 아바바에 건축 중이며 약 25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2,000㎡ 부지를 기증하고, 에티오피아 MCF 회장 Eshetu Deata 대령(목사)이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와 참석한 동아프리카 MCF 임원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아프리카 군선교의 허브(Hub)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희생적 헌신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에티오피아를 넘어 동아프리카, 나아가 아프리카 전체를 위한 군선교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